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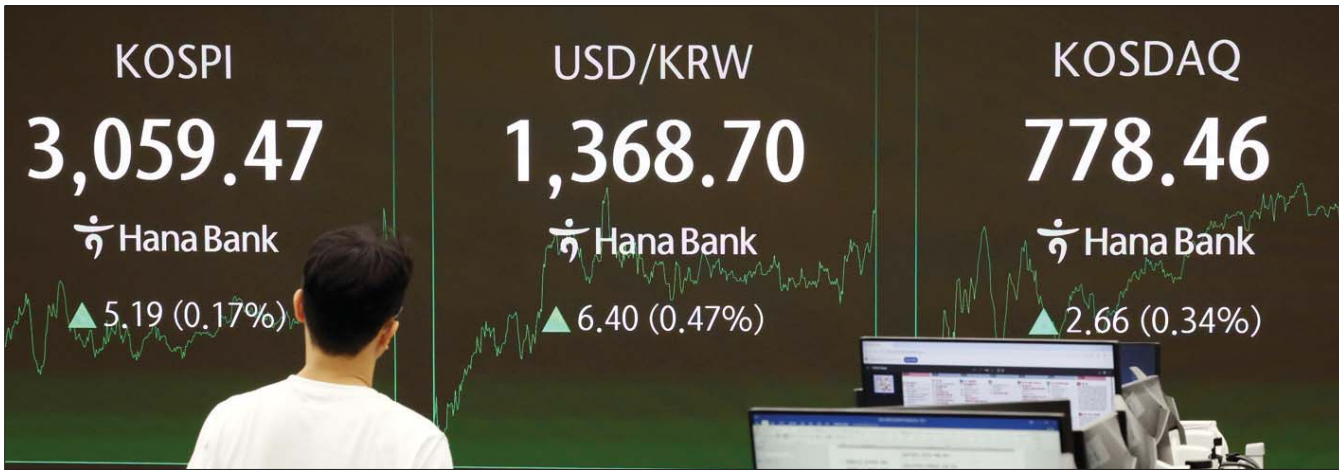
국내 증시, ‘서머럴리’ 기대감 고조… 상호관세 협상 변수

7월에 가장 많은 상승빈도 보여
美 ‘상호관세 협상’ 시한 압박
“소외주 중심 순환매 전략 적합”

계절적 강세 흐름을 보여온 7월 국내 증시에 예년과 다른 긴장감이 감돈다. 과거 45년간 가장 많은 상승 횟수를 기록한 7월이지만,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협상’ 시한과 맞물리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수급과 실적 시즌 기대에 기댄 전통적인 ‘서머럴리’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980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스피는 7월에 총 29차례 상승해 1년 중 가장 상승 빈도가 높았다. 같은 기간 3월과 11월은 28회, 4월과 12월은 26회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7월 평균 수익률도 2.1%로, 월간 기준 최상위권이다.

외국인 순매수 흐름도 뚜렷했다. 1998년 이후 7월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에 나선 해는 27년 중 18년 이었고, 평균 순매수액은 약 4600억원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3054.28)보다 5.19포인트(0.17%) 오른 3059.47에 장을 마쳤다. /뉴시스

에 달했다. 2009년 7월에는 6조원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며 한 달간 코스피가 12% 급등하기도 했다.

이처럼 7월은 통계적으로 ‘믿을 만한 달’로 여겨졌지만 올해는 정반대의 변수들이 겹쳐 있다. 가장 큰 불확실성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다. 트럼프는 4일부터 관세 부과 관련 서한 발송을 개시한다고 밝히며 주요 교역국을 압박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주말을 활용한 강경 발

언→막판 협상”이라는 전례에 따라, 단기적으로 SNS를 통한 관세 위협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트럼프는 과거에도 협상 시한 직전까지 관세 협박 수위를 높이며 리스크 회피 심리를 자극했다”며 “이번에도 협상 지연 및 강행 가능성에 대한 긴장이 높아지는 구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PER이 10.4배로 최근 3년 평균(10.2배)을 웃돌고 있어, 단기적으로

는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단순한 관세율 변화보다 무역 정책 자체의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간접 충격이다. 자본시장연구원 이 이날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상호관세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의 실질 GDP는 약 0.5% 감소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철강·화학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충격이 집중되며, 이 가운데

운송장비 부문만으로도 0.3%의 GDP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정량 분석이 나왔다. 또한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내년까지 이어진다면 GDP 충격은 ?0.5%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실질 GDP 감소와 시장 과열 우려도 속에도 정부 정책 기대감은 여전히 증시의 하단을 떠받치는 요소로 보고 7월 증시 상승을 기대하는 분석도 나온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 추경 통과 등 자본시장 정책 모멘텀이 살아 있어 하단 지지는 유효하다”며 “정책 기대에 선반영된 종목보다는 반도체·자동차·2차전지 등 소외주 중심의 순환매 전략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6월 한 달간 14% 가까이 급등하며 3100선을 넘었던 코스피는 단기 과열권에 진입한 상태”라며 “이번 주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 등 굵직한 이벤트에 따라 증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동학개미, 국내 주식형 ETF ‘뭉치돈’

해외에서 국내로 자금이동 흐름
고율관세·전쟁 등 불확실성 영향

동학개미(국내 주식투자자)들이 국내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로 몰려 들고 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주식형 ETF 설정액은 50조783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40조7528억원)보다 24.61% 증가한 수치다.

국내주식형 ETF로의 자금 유입은 올해 초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증시 부진과 12·3 비상 계엄상태로 부침을 겪었지만 올해 들어 반등 흐름이 이어졌다. 1월 초 40조원 초반대였던 설정액은 약 6개월 만에 10조원 넘게 불어나며 50조원을 넘어섰다. 해외 주식형 ETF는 지난해 말보다 7조4383억원 늘었

다. 설정액은 39조1350억원이다.

국내주식형과 해외주식형 ETF의 자금 흐름이 반전된 것은 국내 증시의 강세와 해외 투자 환경의 불안정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에서는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며 낙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는 흐름이 이어지는 한편, 해외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불안 요인이 커지고 있다.

운용업체는 국내 ETF가 수익률과 안정성 측면 모두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증시의 안정성과 수익률 개선 흐름이 맞물리면서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분위기”라며 “최근에는 조선, 방산, 고배당 등 뚜렷한 투자

테마가 주목받으면서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향성이 명확한 국내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자금이동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와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증시 상승을 뒷받침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승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국내 증시는 이제노믹스(이재명+이코노믹스)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며 “하반기 원화 가치 상승과 새 정부 내수 부양책이 함께 발휘되면 정책 수혜주와 함께 극도로 부진한 내수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화운용, ‘PLUS ETF’ 상반기 수익률 1위

‘PLUS K방산’ 수익률 163%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PLUS 상장지수펀드(ETF)가 올해 상반기 국내·해외주식형 ETF와 미국 상장 ETF 수익률 1위를 모두 석권했다.

7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PLUS K방산’ ETF의 상반기 수익률은 163.31%로, 레버리지를 포함한 국내주식형 ETF 중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PLUS 한화그룹주’ (123.82%), ‘PLUS 태양광&ESS’ (82.67%), ‘PLUS 우주항공&UAM’ (81.47%) 등이 각각 3위, 8위, 9위를 기록하며 수익률 상위 10위권 내에 4종목이 이름을 올렸다.

해외주식형 ETF 부문에서도 ‘PLUS 글로벌방산’ ETF가 상반기 61.64%의 수익률로 1위에 올랐다.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레버리지·인버스 제외) 중

에서도 성과가 두드러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PLUS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 인덱스(KDEF)’ ETF는 올해 2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94.73% 수익률을 기록하며 상반기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자금 유입도 크게 늘었다. 금융투자협회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PLUS ETF의 순자산 총액은 5조 6744억 원으로, 지난해 말(3조 3437억 원) 대비 69.70% 증가했다. 이는 ETF 상위 10개 운용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한화자산운용은 시장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선제적으로 제시한 점을 성장의 배경으로 꼽았다. PLUS ETF는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수혜가 예상되는 산업에 투자하는 전략을 내세웠다.

/원관희 기자

미래에셋박현주재단, 해외교환 장학생 지원

240여명 장학증서 수여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은 ‘제33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7일 미래에셋박현주재단에 따르면 지난 3일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제33기 장학생으로 선발된 240여 명이 참석해 장학증서를 수여받고, 해외파견을 앞둔 장학생 간 교류의 장도 함께 마련됐다.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자’는 미래에셋의 경영이념 아래 운영되고 있는 해외교환 장학사업은 미래에셋의 대표적인 인재육성 프로

그램이다. 2007년 시작 이후 현재까지 총 50개국, 7687명의 대한민국 대학생에게 세계 유수 대학에서의 교환학생 경험을 통해 전공과 언어, 문화적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장학생 선발은 서류전형과 온라인 면접 전형을 통해 진행됐으며, 세계 무대에서의 학업과 경험을 통해 전공과 진로를 심화하고자 하는 목표의식이 뚜렷한 대학생들이 선발됐다. 파견지역에 따라 장학생들에게는 미주·유럽 지역 750만 원, 아시아 지역 550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장용성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이사장은 “해외 파견은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학업과 진로, 그리고 앞으로의 삶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이 ‘제33기 미래에셋 해외교환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기념사진 촬영 모습 /미래에셋박현주재단

에 대해 고민하고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를 통해 쌓은 경험과 배움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각을 키우고, 주변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과 인사이트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RISE 코리아밸류업 ETF’ 순자산 1000억

KB자산운용 연초 이후 수익률 34%

KB자산운용의 ‘RISE 코리아밸류업 ETF’가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증시가 상승 곡선을 그리며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환원 확대 등 밸류업 정책 수혜 가능성이 큰 상장지수펀드(ETF)로 자금이 집중된 모습이다.

‘RISE 코리아밸류업 ETF’는 업계 최저 수준의 보수와 매월 배당이라는 차별화된 구조를 갖추고 있다. 연초 이후 33.98%의 수익률을 기록 중이다. 최근 1개월, 3개월 수익률은 각각

16.59%, 25.98%로 집계됐다.

특히 ‘RISE 코리아밸류업 ETF’의 총보수는 연 0.008% 수준으로,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ETF 가운데 가장 저렴하다.

노아름 KB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RISE 코리아밸류업 ETF는 국내 증시의 구조적 변화와 밸류업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국내 최저 수준의 보수와 월배당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면서 꾸준히 자금을 끌어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godhe@